

구례군 공모사업 상반기 1120억 선정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 지원사업' 등 27건

정책혁신팀 신설 주민밀착형 정책 발굴 성과

구례군이 각종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구례군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 주민생활 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돼 2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도심 속 미니 정원을 꾸미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원예치료 방식을 도입하고 미니 정원 전시회와 공모전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섬진강으로 마실 나온 지리산 미니 정원' 사업을 계획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정부가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맞춤형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 위해 공모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정책혁신팀을 신설해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개선, 재난·재해 예방, 상·하수도 정비, 환경보호 분위기 확산, 관광활성화 등 각종 분야의 공모에 도전해 2021 상반기에 공모사업 27건 1120억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개선 분야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458억원), 가족센터 건립(3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

합 지원(30억원) 등이다.

재난·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선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340억원), 신월지구 급경사지 정비(60억원)을 확보했다.

환경보호 분위기 확산 분야에서는 지리산 반달곰 홍보관 건립 및 생츄어리 조성(242억원), 상·하수도 정비 분야에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370억원),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32억원) 등이 선정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과거에는 정부에서 발굴한 정책을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에 충실했지만 최근 지방자치제가 성숙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며 "부족한 재원 확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의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광양와인동굴과 에코파크가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 곳은 한여름에도 17~18도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고 자외선, 미세먼지 등 외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광양시 제공>

광양와인동굴·에코파크 피서지로 딱이네

한여름에도 17~18도 유지...죽육·암벽타기·공룡화석 탐사 등 다채

폭염과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단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광양와인동굴과 에코파크가 최적의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페터널을 변모시킨 광양와인동굴과 에코파크는 한여름에도 17~18도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고 자외선, 미세먼지 등 외부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광양와인동굴은 와인의 역사, 세계 와인 전시·

판매장, 인터랙티브존, 오브젝트 팸핑, 미디어 파사드 등을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세계 다양한 와인을 맛보며 낭만을 즐길 수 있다.

은은한 와인 향기와 함께 발의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 와인죽육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 최초 동굴체험학습장인 에코파크는 갯벌, 암벽등반, 화석탐사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콘텐츠로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신비감을 주는 동굴에서 암벽을 등반하고, 알에서 깨어나 펄쩍펄쩍 뛰어가는 공룡을 만나고, 화석을 탐사하는 이색 체험은 무한한 즐거움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광양에코파크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던 방식에서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되는 창의공간이다.

두 곳 모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휴일 없이 운영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1000원 여객선' 본격 시행

내달 1일부터 106개 구간

여수시가 도시민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이용 도시민을 대상으로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

여수시는 28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8월부터 도시민 1000원 여객선 요금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1000원 요금제 시행 대상은 생활항로(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구간인 신기-여천, 거문도~초도, 백야-상·하화도, 개도-남도 등 총 106개 구간으로, 지난해 이 항로 여객선을 이용한 도시민은 8만 2223명에 달한다.

현재 도시민 여객선 운임은 해양수산부 '도시민 여객선 운임 집행지침'에 따라 8340원 미만은 50%, 3만원 미만은 5000원, 3만원~5만원은 6000원, 5만원 초과는 7000원을 부담한다. 여수시는 도시민들이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항로뿐만이 아니라 전 구간 1000원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전라남도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앞으로도 도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도시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선의 항로 안정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곡성군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호응

목공예 체험키트 등 제공...가족 간 거리 좁히기 한몫

곡성군이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한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곡성군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가정에 체험키트를 보내주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각종 물품 등을 만드는 활동이다.

프로그램에는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정 68가구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활동을 통해 TV와 스마트폰에 뺏긴 가족 간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었다.

활동이 끝나고 사진을 찍고 소감문을 써보며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며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프로그램 참가자 A씨는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딱히 찾기가 힘들어서 점점 아이들과 멀어지는 느낌이였다. 그런데 서랍장



곡성군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이 목공예 체험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여러 날 같이 작업을 하다보니 서로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아이들이 평소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더 잘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반기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은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곡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순천시, 복지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 내달 6일까지

순천시가 오는 8월 6일까지 '위드(with) 코로나, 더 행복한 순천' 복지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순천시 복지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일환으로, 순천시 지역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언택트(Untact) 복지아이디어 ▲순천시 지역특색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로 실현가능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 전 분야(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저소득 등)로, 이 중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응모하면 된다.

공모 신청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8월 6일까지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